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

2018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이민경 부연구위원, 박혜정 연구원, 권영란 연구원

요약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 특성 조사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8년에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과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의 변화를 분석함
- 응답자는 대부분 ‘한옥목구조+기와지붕’의 건축물을 한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년도에 비해 ‘한옥목구조+일반지붕’, ‘일반목구조·조적조·RC조+기와지붕’ 건축물을 한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옥으로 인식되는 건축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옥에 대한 호감도와 거주의향은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옥 거주 및 방문 경험, 숙박 체험 등 직접적으로 한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옥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 호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옥의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 용도는 문화시설(40.7%)과 숙박시설(36.1%)로 조사되어, 한옥 주택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별한옥 보다는 한옥마을 거주의향이 2016년 대비 14.7% 증가하였고, 20세대~49세대 이하 규모의 한옥마을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50세대 이상 규모의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한옥마을 보급이 필요함

1. 전국단위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개요

■ 전국단위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실시(2013, 2016, 2018)

-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분석을 토대로 한옥 실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과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의 변화추이와 2018년도의 현황을 파악함

■ 2018년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 본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 인식,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특성 등을 조사함

표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3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일반국민	조사 지역	전국 16개 특별시,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18년 9월 20일 ~ 10월 15일
표본 규모	총 1,000명	조사 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표본 할당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		
조사내용	응답자 특성별 한옥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한옥 수요 특성, 한옥마을 수요특성, 한옥 거주 노력, 안전 문화 추가		



2. 한옥에 대한 인식

■ 한옥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관광 체험 및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 응답자의 93.3%가 한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주로 문화재 및 유명 한옥마을 관광체험(58.7%)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2016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숙박체험(18.9%)과 경험 없음(6.7%)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한옥주택을 방문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많은 반면, 30~40대는 숙박체험과 문화체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층일수록 숙박 및 문화체험을 통해 한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한옥에 대한 경험 (2013, 2016,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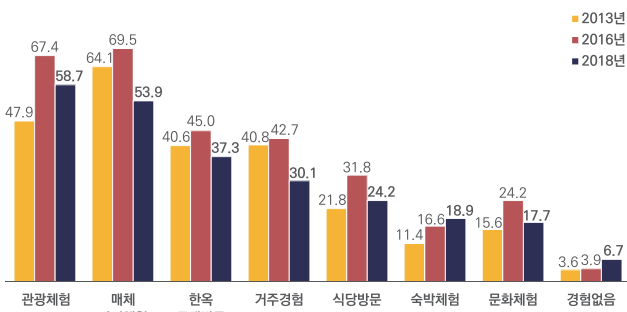


표 2. 연령별 한옥 경험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중복응답, 단위: %)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한옥 관광 체험	59.5	60.8	58.4	52.5
매체 간접 경험	56.4	53.3	51.9	55.0
한옥 주택 방문	33.7	35.3	41.0	40.8
한옥 거주 경험	11.7	24.2	43.9	50.0
한옥 식당 방문	26.9	23.5	23.9	20.8
한옥 숙박 체험	22.3	22.2	17.1	7.5
한옥 문화 체험	15.9	22.5	18.1	8.3
경험 없음	8.7	8.2	4.5	4.2
기타	0	0	0.3	0

■ 한옥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 한옥 경험자의 호감도는 높음

- 응답자 10명 중 약 7명(67.8%)이 한옥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호감도가 2013년 87.1%, 2016년 83.1%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한옥에 대한 호감이 있는 이유로 ‘편안함’, ‘친환경적’, ‘전통적’, ‘자연친화적’이 주로 언급된 반면, 호감이 없는 이유로는 ‘불편함’, ‘관리/유지보수의 어려움’, ‘겨울에 추움’ 등 실제 경험에 의한 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이 주로 언급됨

그림 2. 한옥에 대한 호감도 (2013, 2016,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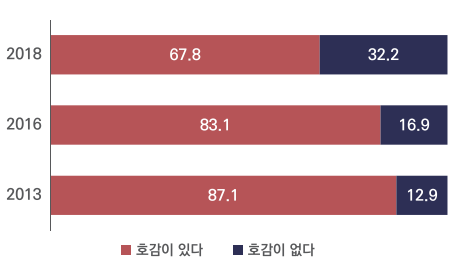


그림 3. 한옥에 대한 호감 이유 (2013,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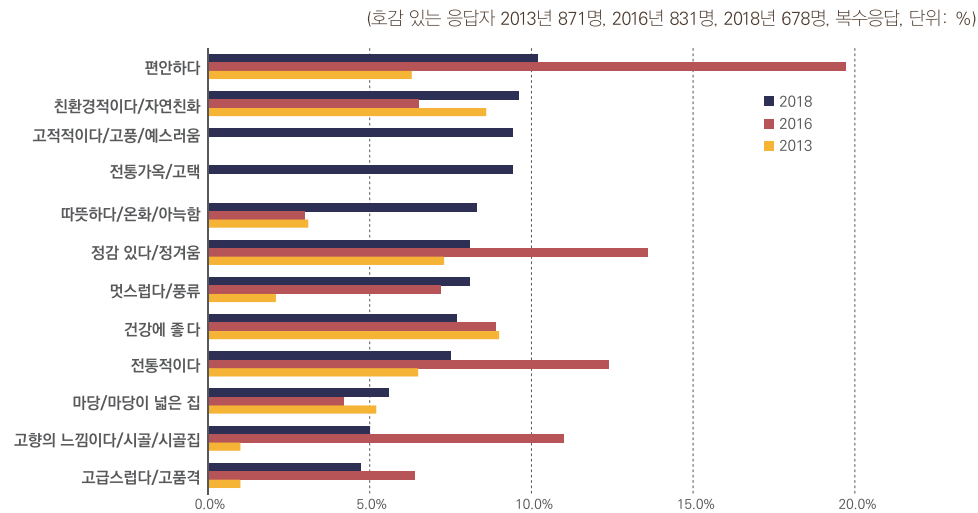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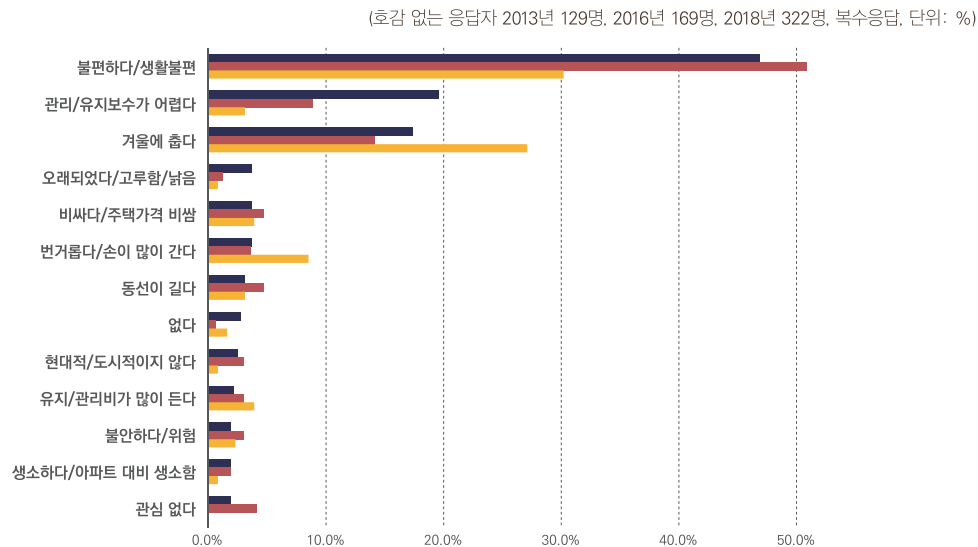


그림 4. 한옥에 대한 비호감 이유 (2013, 2016, 2018)



- 한옥에 대한 호감도는 한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 보다 한옥 거주 경험이 있거나 한옥 주택 방문 및 숙박체험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서 약 2배 높게 나타나, 한옥에 대한 직접 경험이 한옥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 67명 중 25명(37.8%)이 한옥에 호감이 있었으며, 한옥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8.1%(301명 중 235명), 한옥 주택 방문 및 숙박체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각 75.1%(373명 중 280명)가 한옥에 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한옥 거주 및 한옥 주택 방문 경험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한옥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한옥 호감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한옥 경험에 따른 호감도 차이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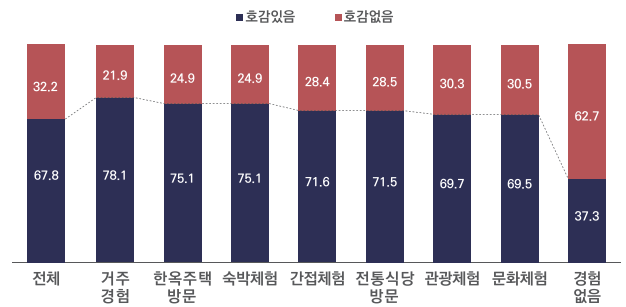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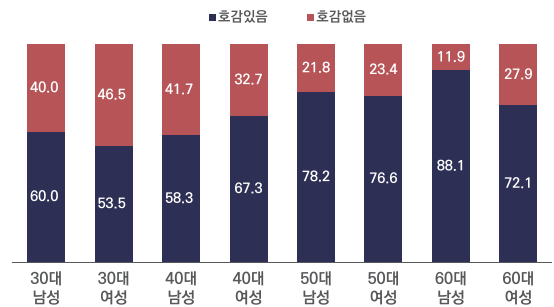


그림 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한옥 호감도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단위: %)



■ 일반인이 인식하는 한옥은 한옥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축물

- 일반인에게 한옥으로 인식되는 건축물은 주로 ‘한옥목구조+기와지붕+전통방식(97.9%)’이거나, ‘한옥목구조+기와지붕+현대식 내부(84.6%)’로 나타남
- 하지만 2018년도에는 과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한옥목구조+일반지붕’, ‘일반목구조·조적조·RC조+기와지붕’ 건축물이 한옥으로 인식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한옥의 인식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한옥에 대한 인식 범위(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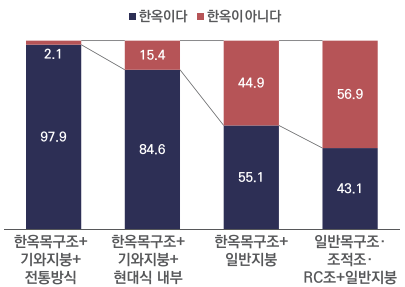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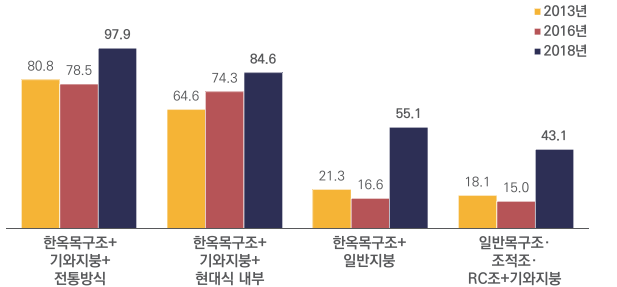


그림 8. 한옥의 인식 범위(2013, 2016,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복수응답, 단위: %)



■ 한옥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는 기와지붕

- 일반인들은 한옥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를 ‘기와지붕(31.3%)’, ‘전통설비(18.3%)’, ‘내부공간(16.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와지붕은 한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나, 과년도에 비해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그림 9. 한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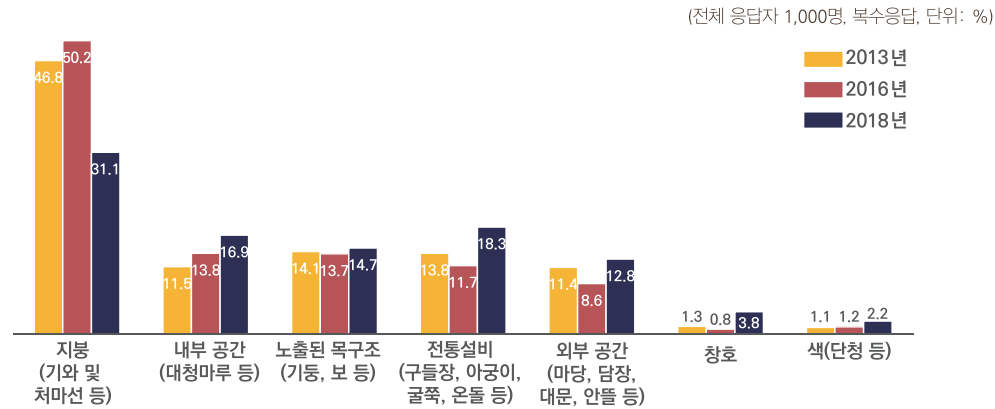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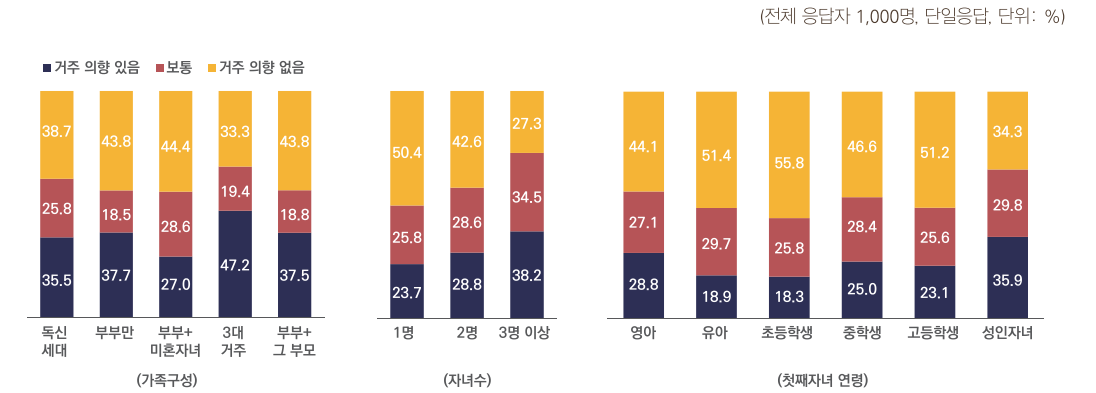


그림 11. 가족형태에 따른 한옥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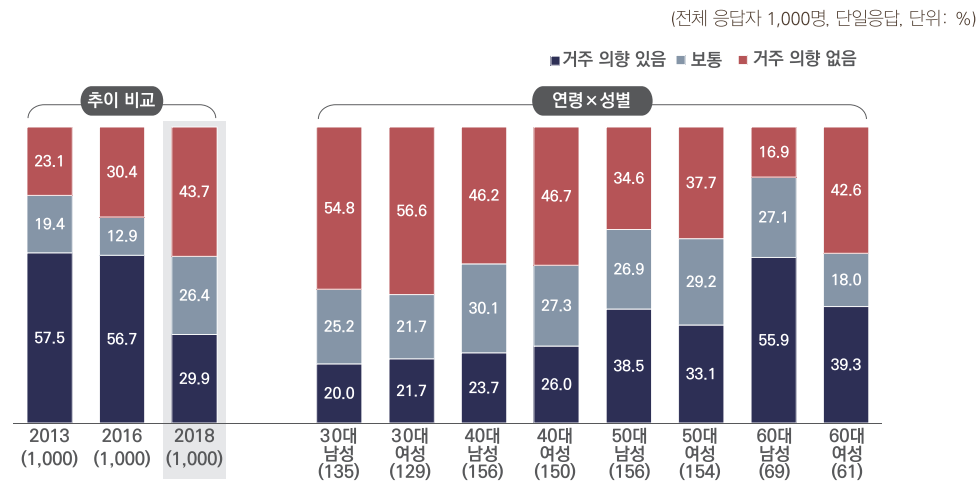


3. 한옥 수요 특성

■ 한옥 거주 의향자는 29.9%

- 응답자 10명 중 약 3명(29.9%)이 향후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부터 거주 의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0. 향후 한옥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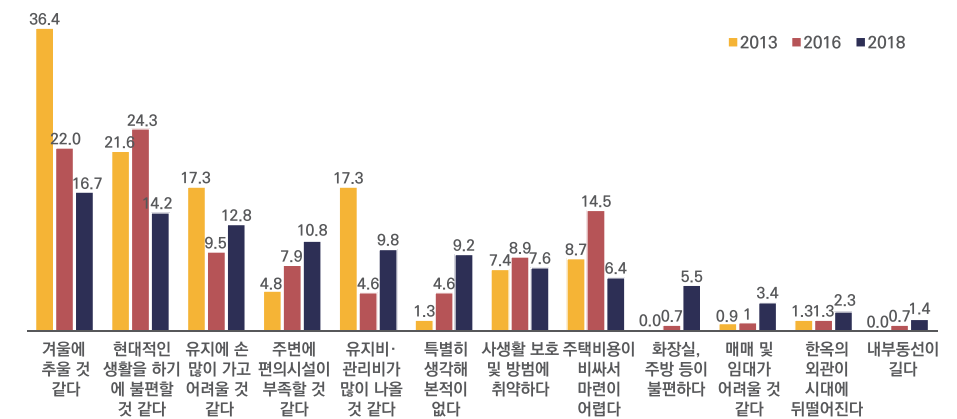
- 한옥 거주 의향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았으며, 특히 60대 남성 집단에서 가장 우호적인 것(거주 의향 55.9%)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원에 따른 한옥 거주 의향 분석 결과,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자녀 3명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집단의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거하는 가족의 수가 많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옥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겨울철 난방문제와 생활의 불편함

-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16.7%, 1순위 응답기준), ‘현대적인 생활의 불편함’(14.2%), ‘유지관리의 어려움’(12.8%) 등이 주로 언급됨
- 2016년 대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높은 유지비/관리비’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 한옥 거주 시 발생하는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 한옥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2013, 2016, 2018)

(한옥 거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 2013년 231명, 2016년 304명, 2018년 437명, 복수응답,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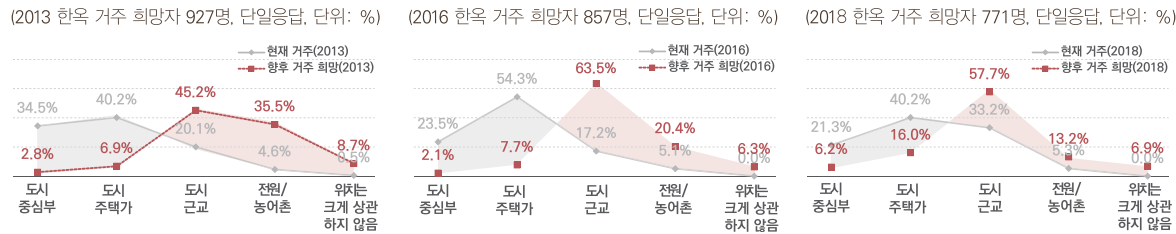
■ 한옥 거주 희망지역은 도시 근교

- 한옥 거주 희망자* 중 60% 이상이 도시 중심부 및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희망하는 한옥 거주 지역으로 도시 근교(57.7%)를 가장 선호함

* 한옥 거주 희망자 = 한옥 거주 의향자 + 유보자(보통 응답자) + 비거주 의향자 중 문제점 개선 시 거주 의향 있는 사람과 유보자(보통 응답자) + 한옥 거주 의향자 부스터 표본(100명)

- 2018년 조사 분석결과, 2013년, 2016년에 비해 전원/농어촌보다 도시 중심부 및 주택가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증가함

그림 13. 현 거주지역과 한옥 거주 희망지역 (2013, 2016, 2018)



■ 거주하고 싶은 한옥은 자가소유의 신축 한옥으로 주택가격 3억원(전국 평균) 희망

- 한옥주택에 대한 전세·월세 수요는 4.4%에 불과하며 대부분 자가소유(95.6%)를 희망하였고, 신축한옥을 분양 및 구입(36.8%)하거나 기존주택 및 토지 매입 후 한옥 신축(29.3%)의 형태로 거주를 희망함
- 한옥의 희망 주택가격 전국 평균은 3억 원대가 적정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지역별 한옥주택가격은 ‘강원,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은 2억~3억 원대, ‘부산/울산/경남, 서울/인천/경기’는 3억~5억 원대에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 거주형태별 한옥주택 희망가격 (2018)

(한옥 주택 구매 희망자 737명,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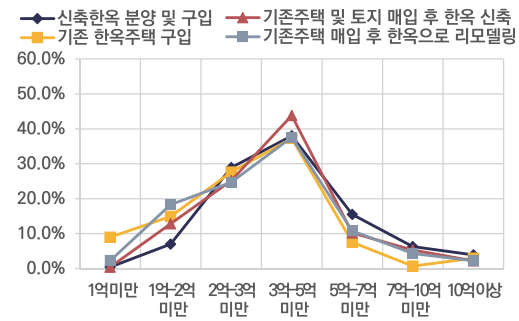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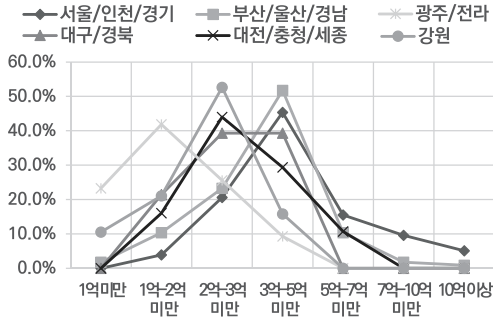


그림 15. 지역별 한옥주택 희망가격 (2018)

(한옥 주택 구매 희망자 737명, 단일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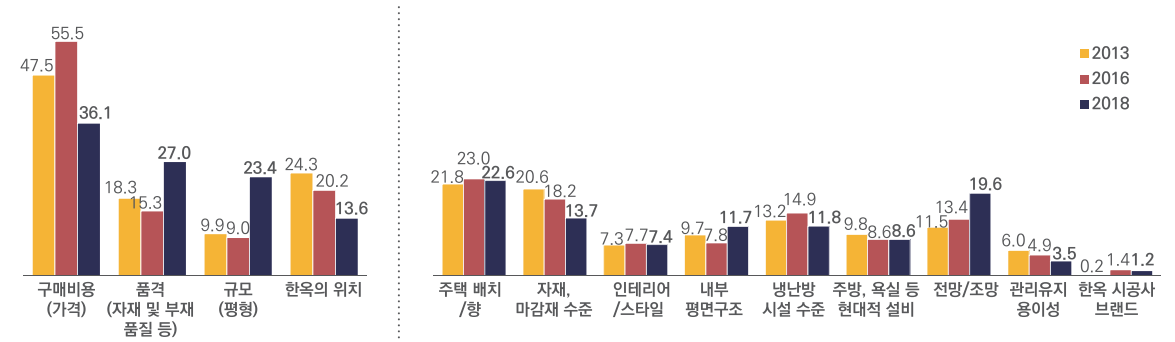
■ 한옥 거주 희망자가 한옥 구매 시, 가장 큰 고려 요인은 구매 비용과 주택 배치/향

- 한옥 거주 희망자는 한옥 구매 시 구매비용(36.1%)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2013년(47.5%), 2016년(55.5%) 대비 큰 폭으로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한옥의 품격(27.0%)과 규모(23.4%)를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 건축적 측면에서는 ‘주택 배치/향(22.6%)’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전망/

- 조망(19.6%)과 ‘내부 평면구조(11.7%)’를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한 반면, ‘자재, 마감재 수준(13.7%)과 ‘냉난방 시설 수준(11.8%)’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함

그림 16. 한옥 구매결정 시 고려요인 (2013, 2016, 2018)

(한옥 거주 희망자 2013년 927명, 2016년 857명, 2018년 771명, 1순위응답, 단위: %)



4. 한옥마을에 대한 인식

■ 한옥 거주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한옥마을 선호

- 한옥 거주 희망자 중 절반 이상(56.3%)이 한옥마을에 입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도에 비해 한옥마을 선호도가 13.0% 상승함
- 한옥마을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향후 유지관리 및 안전문제 용이(37.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적인 경관 형성(35.6%)’, ‘이웃 주민과 친목을 도모하기 쉬움(3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이웃 주민과 친목을 도모하기 쉬움’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2013년 대비 -11.0%), ‘공동분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016년 대비 +8.4%)

그림 17. 한옥 거주 희망 형태

(한옥 거주 희망자 2013년 927명, 2016년 857명, 2018년 771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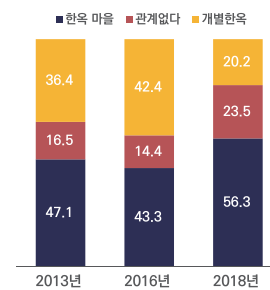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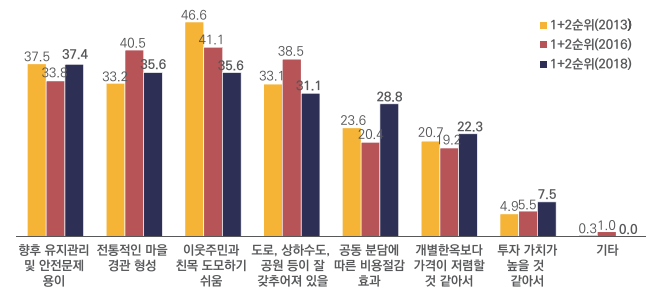


그림 18. 한옥마을 거주 희망 이유 (2013,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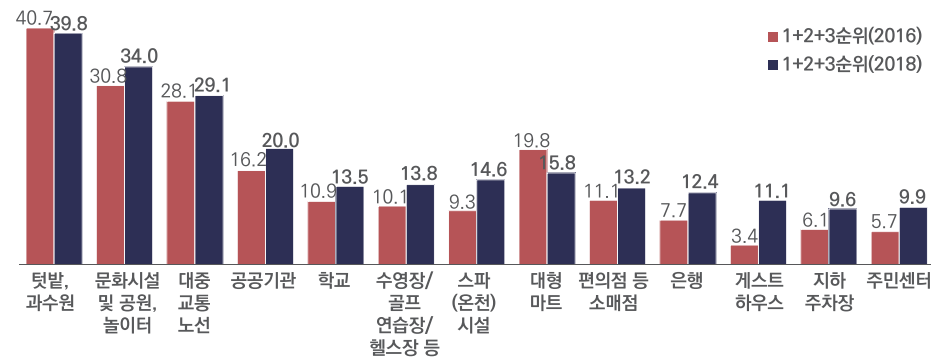
(한옥마을+관계없음 거주 희망자 2013년 590명, 2016년 495명, 2018년 615명, 1+2순위응답, 단위: %)



- 한옥마을 거주 시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은 ‘텃밭/과수원(39.8%)’이며, 2016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대형마트(15.8%)’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에서 한옥마을 거주 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

그림 19. 한옥마을 내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 (2013, 2016, 2018)

(한옥마을+관계없음 거주 의향자 2018년 537명, 2016년 495명, 3순위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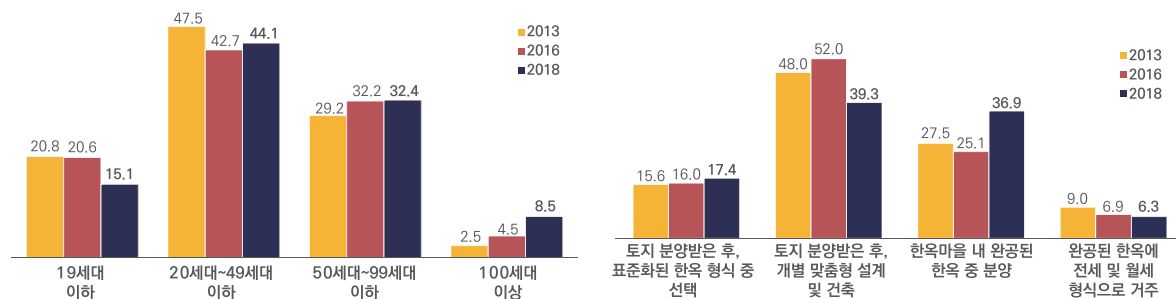


■ 한옥마을 거주 희망자는 50세대 미만의 한옥마을 내 개별 맞춤형 한옥 선호

- 2018년도 조사 결과, 한옥마을 거주 희망자가 원하는 한옥마을의 규모는 ‘20세대~49세대 이하(44.1%)’가 가장 많았으며, 2013년, 2016년에 비해 ‘50세대~99세대 이하’와 ‘100세대 이상’의 한옥마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옥마을 희망 입주 방식은 ‘토지를 분양받은 후 개별 맞춤형으로 설계 및 건축(39.3%)’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2016년 대비 감소하였으며(2016년 대비 -12.7%), ‘한옥마을 내 완공된 한옥 중 분양’하는 방식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016년 대비 +11.8%)

그림 20. 한옥마을 희망 세대 구성 수 및 희망 입주 방식 (2013, 2016, 2018)

(한옥마을+관계없음 거주 희망자 2013년 590명, 2016년 495명, 2018년 615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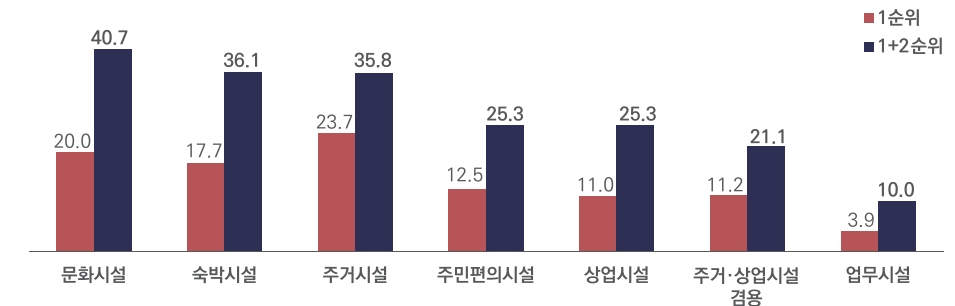
5. 한옥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 한옥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의 용도는 문화시설

- 응답자들은 한옥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의 용도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40.7%)’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숙박시설(36.1%)’과 ‘주거시설(35.8%)’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1. 한옥의 적합한 용도 (2018)

(전체 응답자 1,000명, 2순위응답, 단위: %)



■ 한옥 거주자의 장애요인은 한옥 주택 구입 자금 및 관련 정보 부족

- 한옥에 거주하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자는 10명 중 2명(22.4%)에 불과하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한옥 주택 구입 자금 부족(39.3%)과 한옥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26.3%), 그리고 한옥 관련 상담센터 찾기 어려움(25.4%)으로 나타남

그림 22. 한옥 거주 노력 경험 (2018)

(거주 노력 여부 응답자 1,000명, 단일응답, 거주 노력 경험자 224명, 노력 방법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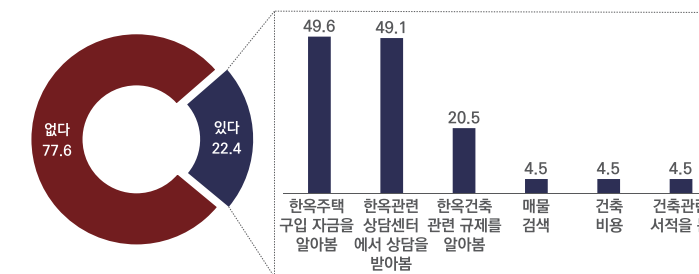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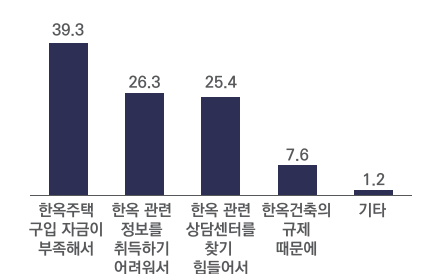


그림 23. 한옥 거주하지 못한 이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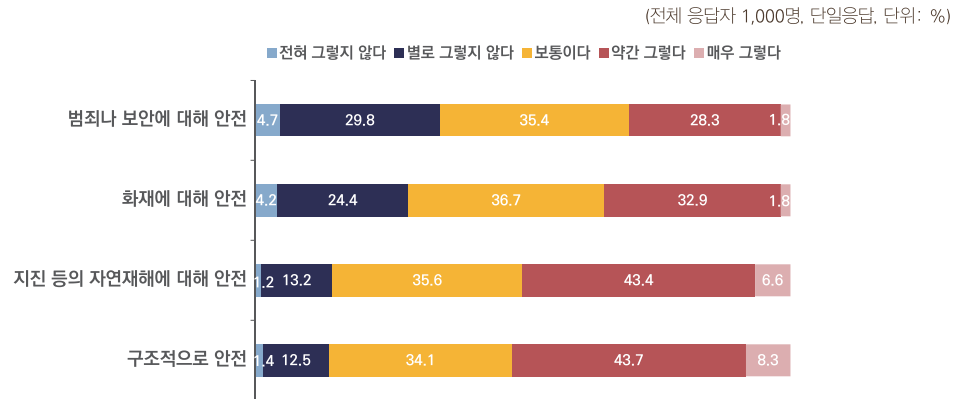
(거주 노력 경험자 224명, 복수응답, 단위: %)



■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옥은 안전하다고 인식함

- 한옥에 대한 범죄·보안,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보통이다’ 응답자 포함)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조나 지진에 비해 화재와 범죄·보안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한옥의 안전에 대한 인식



문의 | 이민경 mkleee@auri.re.kr
박혜정 hjpark@auri.re.kr
권영란 yrkwon@auri.re.kr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www.hanokdb.kr

